

‘그냥드림’ 사업 본격 운영 ‘2세대 스마트팜’ 시대 열어

장수군, 복지 사각지대 해소·군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위해 식료품·생필품 지원

장수군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경제적 위기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먹거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게 마련된 사업이다.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이번 사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 2회 장수군 장애인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된다.

이름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장수군민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8월부터는 보다 많은 군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수를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매주 수요일 운영을 시작해 주 3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최후식 군수는 “경제적 위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며 “이번 ‘그냥드림’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한편 장수군은 앞으로도 복지서비스

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어르신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 돌보기’ 호응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마음 돌보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말부터 이날 말까지 약 한 달간 주천면 안정마을과 대촌마을에서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원예활동을 통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음 건강 회복을 돕고 있다.

진안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우울감과 불면, 심



리적 위축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전문 원예심리치료사가 진행하며, 꽃과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고 정

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는다.

식물을 매개로 한 원예치료는 스트레스 완화와 우울감 감소, 사회적 교류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어르신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처음에는 주 2회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먼저 수업 시간을 기다릴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회관은 꽃을 매개로 웃음과 이야기가 오가는 치유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반딧불축제 ‘반딧불이 가요제’ 참가자 모집

오는 9월 6일 제2회 반딧불이 가요제(본선)가 개최되는 가운데 무주군은 8월 7일(~오후 4시)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 대상은 무주군과 금산군, 영동군 거주자(가수협회 회원 등록자 및 본 가요제 수상자(1등) 제외)다.

신청은 무주군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무주반딧불축제 위원회 사무실로 하면 된다.

전자우편(redisk410@korea.kr)으로도 접수(문의: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063-320-5015)할 수 있다.

제2회 반딧불이 가요제는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를 빛내고, 매년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3도 3군(무주군(전북), 금산군(충남), 영동군(충북)) 주민들의 화합과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

에서 개최된다. 예선은 8월 11일 무주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곡은 장르 제한이 없으며 대상(1팀) 수상자에게는 100만 원, 금상(1팀) 70만 원, 은상(1팀) 50만 원, 인기상과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각 30만 원의 무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한편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는 반디의 빛 세계를 만나다를 주제로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등나무운동장, 자남공원, 남대천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첨단 스마트팜 플랫폼 ‘아라온실’ 시범 도입

진안군은 미래형 스마트농업 구현을 위한 2세대 스마트팜을 시범 도입했다.

군은 국내 시설원에 장비의 호환성을 높이고 지능형 복합환경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인 ‘2세대 시설원에 스마트팜 플랫폼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고, 0.4ha 규모의 방울토마토 시설하우스 1개소에 첨단 스마트팜 플랫폼인 ‘아라온실’을 구축했다.

이번에 시범 도입한 ‘아라온실’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팜 통합 운영 플랫폼이다.

시설 내 다양한 장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해 운영할 수 있으며,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을 필요한 기능에 맞게 설치·활용할 수 있어 장비 간 호환성과 데이터 활용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사업을 통해 구축된 주요 시설은 △복합환경제어기 △관제용 PC 및 모니터 △양액기 △외부기상대 △데이터 수집용 센서 및 노드 등으로, 2세대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갖췄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1세대 스마트팜과 비교해 초기 구축 비용은 약 40% 절감하고,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앱 활용으로 생산성은 37.6% 향상, 노동력은 11.1% 절감, 농가소득은 46.3%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사과 품평회 참가 농가 모집

장수군은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사과 품평회 참가 신청을 22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사과 품평회는 장수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최고 품질의 장수 홍로사과를 발굴해 장수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축제 때마다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사과를 재배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며, 출품 품종은 ‘홍로’이다.

출품 사과는 수령 5년 이상 과원에 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10kg 상자 기준 28~32과 크기로 맞춰야 한다. 출품 물량은 총 100품 내외로 선착순



접수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접수 기간 내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장수사과원에 농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상작은 대상과 최우수상을 포함해 총 5점을 선정하며 선정된 사과는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기간동안 행사장에 전시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진안군의회(의장 김영갑)는 지난 21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한효임 의원, 부위원장에 손동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구성된 예결특위의 활동 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7년도 본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게 되며,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에서 필요한 분야



한효임 위원장

손동규 부위원장

에 우선 배분되었는지, 사업 추진계획과 집행 가능성은 충분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장마철 사과 탄저병 예방 총력

무주군이 장마철 잦은 강우와 높은 습도로 인한 사과 탄저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과 적기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사과 재배농가 635ha 규모의 방제 대상 면적에 예방 약제 공급을 완료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사과 탄저병 예방 중점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관리 기간 동안 농촌진흥청과 전북농업기술원과 협력해 기상예보와 연계한 방제 안내 문자를 농가에 발송하고, 탄저병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탄저병 발생 시에는 현장 기술 지원도 신속히 추진한다.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사과와 고추 등에 발생하는 병해로, 감염되면 검은 반점과 함께 과실이 움푹 들어가고 담갈색 포자가 형성되며 빠르게 확산된다. 특히 발생 이후에는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비가 오기 전 예방용 살균제를 살포하고 배수로를 정비해 물 고임을 방지하는 한편, 감염 과실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한 뒤 치료용 살균제를 살포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전국한우협회 장수군지부 가족한마음 전진대회 열려

장수군은 지난 21일 장수한우리전당에서 ‘전국한우협회 장수군지부 가족한마음 전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한우협회 장수군지부(지부장 이상식) 주최로 개최됐으며 한우산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수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우농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우 장수부군수와 정상득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한우농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유공자 표창, 화합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며 장수한우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결속을 다졌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